

2006년도 한국지역난방협회 사업 계획

1. 事業目的

집단에너지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

- 협력 체제 확립
- 안정 기반 확충
- 경쟁력 우위 확보

- 우리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대내외 협력 역량을 강화하여 에너지관계 법령, 정책,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안정기반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최대 성과를 거두어 나아감으로써 에너지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, 실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2. 事業概要

가. 사업 환경 분석 및 전망

① 집단에너지사업 시장변화와 주변 환경

- 2006년말까지는 유가가 U\$40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U\$70까지 오를 것이라는 미국 정보성의 발표.
올해도 고유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.
- 최근 주택보급율이 90%를 넘고 있어 대규모 신규 택지지구 조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.
- 집단에너지사업자도 지난 99년 시장개방 이후 주택건설사업자, 도시가스사업자, 열병합발전사업자, 에너지전문기업(ESCO)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합집산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임.
- 앞으로는 1~2만 세대 규모의 중, 소규모 신규 또는 재건축, 재개발단지가 전국 주요도시 인근에서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에서 중, 소규모 사업장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예시되고 있음.
- 집단에너지사업은 택지조성사업자, 주택사업자, 지방자치단체, 도시가스사업자 등 다양한 기관과 이해가 얽혀져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 추진방식에 따라서는 중소규모 열병합발전사업자, ESCO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간에 에너지절약 및 CO 배출 저감효과와 관련한 품질경쟁도 예상되고 있음.
-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 경쟁치열(원가보전을 이유로 지역난방아파트에

- 취사용 연료 미공급, 열전용 보일러에 대한 연료비 및 지속인상 추진, 열전용 보일러 추가 증설을 이용한 수요개발을 억제하고 에특 등 에너지정책자금 축소시키고 있는 추세)
- 사용자 및 시장으로부터 위협요인, 즉 타 에너지사업자와의 공급구역 충돌, 요금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, 전력거래소의 불확실성, 소비자의 공급망 이탈, 에너지 공급구역의 조정, 천연 가스 및 전력망에 대한 개방적 접근, 또한 2007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총량제와 관련하여 허용총량할당 배출 허용거래 등 관련 제도, 고체연료 사용 금지와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등 위협 요인이 가중되고 있음.

②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대응전략

- 집단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정보 교환 및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다. 또 다른 사업영역 (열병합사업자, ESCO사업자 등)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취지인 에너지절약 및 CO 저감효과를 사업의 제1목표로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함.

나. 2006년도 주요 사업추진계획

① 회원 확대 및 대외협력 역량 강화

- 신규 회원가입 적극 추진
- 회원사간 유대 협력 강화
- 관계기관 대외 협력망 확충
- 분야별 자문위원 위촉 및 확대
- 공급망 확대 및 수익확보를 위한 공동 전략 수립

②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추진

- 에너지시장 동향 분석 대응전략 개발
- 집단에너지사업법, 전기사업법, 도시가스사업법, 석유사업법, 환경관계법, 건축법 등 관련법, 에너지관련 법령 개정 및 규제, 제도 개선 방안 추진
- 지역 냉·난방 요금 제도 개선 추진

③ 신기술제고와 전문가양성 교육훈련사업 및 대외 홍보전략 강화

- 신기술지식정보 수집 연구개발 교류협력
- 최고경영자 및 경영, 기술전문가 정규교육과정 확대 실시, 에너지전문교육 Academy 설립 운영
- 집단에너지 최고 경영자 기술 대상 제정, 협회 위상 제고, 대외 홍보활동 강화(산업자원부 장관 포상)
- 국제에너지기구 가입 및 교류협력 증진, 국제회의 참가
- 해외 CHP/DHC정책 동향 파악